

연구논문

#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복장을 통해 본 17세기 호남 지역 재건 불사의 한 측면

---

이승혜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불교미술사 전공

seunghye@dau.ac.kr

---

I. 머리말

II.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복장의 발견과 수습

III. 용천사관 『조상경』을 통해 본 주요 복장 물품

IV. <조상발원문>에 나타난 17세기 호남의 재건 불사

V. 맺음말

## I. 머리말

---

광주(光州) 원각사(圓覺寺)는 일제강점기에 순천 선암사(仙巖寺)의 포교당으로 창건된 이래 지금까지 법등을 이어 오는 도심 사찰이다. 1940년에 준공된 극락전 안에 본존으로서 봉안된 목조여래좌상은 오랫동안 근대기의 불상으로 여겨졌으나, 2024년에 실시된 불상의 복장(腹藏)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조상발원문(造像發願文)〉을 통해 1646년(順治 3, 인조 24) 5월 17일에 광주 서석산(瑞石山, 현재의 무등산) 증각암(證覺庵)에서 조성·봉안되었던 불상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그림1).<sup>1</sup> 복장 조사에서는 〈조상발원문〉과 후령통(喉鈴筒)을 포함해 모두 13건 126점의 복장 물목(物目)이 확인되었다(그림2).<sup>2</sup>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과 〈조상발원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불교계가 벌였던 재건 불사(佛事)의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 주는 새로운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조상발원문〉에서는 17세기 전라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재건 불사를 이끌었던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과 그와 조력했던 무염파(無染派) 조각승들의 법명이 확인된다.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본고는 2025년 9월 25일에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개최된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성격과 의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복장물 조사와 논문 집필에 도움을 준 송광사성보박물관 고경 관장스님과 토론을 맡아 준 김태형 학예실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조사 자료 및 도판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한성욱 이사장, 동국대학교 송은석 교수, 위덕대학교 이선용 교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 1 조사는 2024년 8월 11일에 광주 원각사 극락전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각사 송립현고 주지스님·박주욱 종무실장, 송광사성보박물관 고경 관장스님·연옥 부관장스님·김태형 학예실장·신은영 연구원, 민족문화유산연구원 한성욱 이사장, 해남군 장모창 학예연구사,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송은석 교수가 입회했다.
- 2 〈조상발원문〉을 비롯한 복장 조사 결과는 다음 논문을 통해 학계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김태형, 「순천 송광사 응진당 삼존불 및 광주 원각사 극락전 목조여래좌상 복장 유물」, 『동악미술사학』 36(2024), 237~249쪽.



그림1-海深 등, 〈목조여래좌상〉,  
조선 1646년, 높이 84.0cm,  
무릎 폭 58.0cm, 광주 원각사,  
사진은 송광사성보박물관 제공



그림2-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복장 물품 전체 모습,  
사진은 송광사성보박물관 제공

각성의 조형 활동 및 조각승들과의 협업은 선행연구에서 널리 검토되었으나,<sup>3</sup> 1646년의 증각암 불사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신자료로서 중요성이 있다. 또한, 〈조상발원문〉에는 17세기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당승(唐僧)’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어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은 후령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불상 내부의 공간을 전적과 다리니 및 지류로 채웠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복장의 일반적인 모습과 상통한다. 17세기 복장에 보이는 물목의 간략화와 구성의 정형화는 조선시대에 정립된 『조상경(造像經)』이 실제 복장에 적용된 결과로 해석된다.<sup>4</sup> 그런데 조선 후기 복장의 실제 봉안 양상을 살펴보면 『조상경』에 지시되지 않은 부분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모습도 보인다.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후령통 역시 『조상경』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불상의 내벽은 인쇄본 진언을 붙여 마감했는데, 이에 대응하는 규범은 『조상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그 연원과 기능에 대한 고찰을 요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광주 원각사의 연혁과 목조여래좌상의 복장 조사 과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이어서 후령통의 특징과 복장 내에 사용된 다라

3 각성의 활동에 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지면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전영준, 「碧巖覺性의 남한산성 축성과 사원 중창」, 『한국인물사연구』 12(2009), 235~241쪽; 고영섭, 「벽암 각성의 생애와 사상」, 『강좌미술사』 52(2019), 35~73쪽; 문명대, 「벽암 각성의 조형 활동과 불상 조성」, 『강좌미술사』 52(2019), 15~33쪽 등 참조.

4 현재까지 알려진 판본은 1575년 담양 용천사 『조상경』, 1697년 홍양 능가사 『관상의례』, 1720년 용강 화장사 『화엄조상』, 1740년 함흥 개심사 『조상경』, 1746년 상주 김룡사 『조상경』, 1824년 고성 유점사 『조상경』의 6종이 있다. 남권희, 「조상경 판본의 서지적 연구」,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造像과 禮敬』(서울: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142~194쪽 참조.

니에 대해 1575년(선조 8)에 전라남도 담양 용천사(龍泉寺)에서 간행된 『조상경』에 규정된 의식 절차에 비추어 검토하겠다. 현존하는 『조상경』 판본 중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복장과 시기적·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용천사판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복장 물목의 특징을 파악해 보겠다. 다음으로 <조상발원문>을 중심으로 1646년 증각암 불상 조성 불사의 주도 세력에 대해 검토하려 한다. 이를 통해 대찰의 증건에서 시작된 호남 지역의 재건 불사가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소규모 암자에까지 미쳤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상의 작업은 17세기 중엽 호남 지역의 불상 조성과 재건 불사의 다각적인 모습을 밝히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복장의 발견과 수습

광주 원각사의 창건에 관한 사료로는 1940년에 박한영(朴漢永, 1870~1948)이 쓴 「선암사광주포교당대법전상량문(仙巖寺光州布教堂大法殿上樑文)」과 1944년에 당시 선암사 주지였던 김영수(金映遂, 1884~1967)가 지은 「송은이공규석·박씨대덕화 헌성기념비(松隱李公圭錫朴氏大德華獻誠紀念碑)」가 있다. 상량문 속의 대법전(大法殿)은 현재의 극락전에 해당한다. 상량문에는 원각사가 1915년(大正 4)에 창건되었다고 기록된 반면, 헌성기념비에는 1914년(佛紀 2941년 甲寅) 여름에 광주 옛 성곽[光州古郭]에 건립되었다고 적혀 있다.<sup>5</sup> 비록 두 기록에 창건 연대는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나, 원각사의 전

---

5 성윤길, 「光州 圓覺寺의 創建과 變遷」,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성격과 의의 학술대회(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2025.9.25), 2~5쪽. 대법전의 상량문과 상량도리는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대전: 문화재청, 서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신이 금봉병연(錦峯秉演, 1869~1916)에 의해 건립된 순천 선암사의 광주 포교당이었다는 점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금봉병연은 1914년 당시 선암사의 주지를 맡고 있었다.<sup>6</sup> 이후 1975년에 본사 관할이 변경되면서 광주 원각사는 순천 송광사(松廣寺)의 말사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1980년대에 작성된 광주 원각사의 옛 「성보대장(聖寶台帳)」과 「원각사재산대장」(귀중품부)에는 이 불상이 1923년에 조성되었으며, 1975년에 증심사(證心寺)에서 이안(移安)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존명은 석가모니불이고, 목조 도금의 높이 3척, 폭 2척의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같은 사중의 인식을 반영해, 2000년대 중반까지 이 불상은 조선 말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조선 후기 불상에 관한 학술적 성과가 축적되면서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조성 연대를 재고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같은 전각에 봉안된 <지장시왕도>(1900년 조성)의 학술 조사를 시행하면서 이 불상의 복장도 함께 조사하게 되었다.<sup>7</sup>

2024년 8월 원각사 극락전에서 실시된 복장의 최초 조사는 불상 저면(底面)의 복장판을 개봉하고, 방형의 복장공(腹藏孔)을 통해 복장 유물을 수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표1).<sup>8</sup> 복장판 위는 범자 ‘옴’ 자를 주서(朱書)한

---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5), 31쪽, 도판 69, 70;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II·III 자료집』(대전: 문화재청, 서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148쪽, 도판 설명 69, 70.

6 금봉병연은 1869년 12월 24일 전라남도 여수 출생으로 14세에 여수 영취산 흥국사의 鏡潭瑞寬(1824~1904)에게 출가해 이듬해 4월 수계했다. 1913년과 1915년에 선암사 주지로 취임했고, 뛰어난 강백으로 인정받았다. 선암사 입구의 부도비전에 1988년 7월에 건립된 금봉대종사비가 있다.

7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편), 앞의 책(2005), 31쪽, 도판 62;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편), 앞의 책(2006), 148쪽, 도판 설명 62.

8 조사 후 불상의 복장공은 임시로 봉인되었으며, 수습된 복장물은 송광사성보박물관으로 이관해 보관하고 있다.



표1-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복장물 조사 과정

조사 전 모습	봉함목 제거 전 모습
	
봉함지 분리 후 모습	봉함목 분리
	
복장 개봉 후 내부 유물 상태	유물 수습
	
불상 내 후령통 안립 모습	수습된 후령통
	

주: 1) 사진은 송광사성보박물관에서 제공  
2) 조사 전의 모습은 2021년에 촬영됨

종이로 봉해 놓은 상태였다. 봉함지에는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으나, 1975년에 목조여래좌상을 광주 증심사에서 원각사로 옮겨올 무렵에 봉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당시 목조여래좌상의 밑면은 밀봉돼 있었으며 복장관은 불상 저면에 철못으로 고정돼 있었다. 복장관 외면에는 금니로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주(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의 ‘옴 바게타 나마 사바하’의 범자 일곱 자가 금자로 쓰여 있었다.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주요 복장 물목으로는 후령통 및 황초폭자(黃綃幅子), 조상발원문과 ‘造像’이라고 묵서된 봉투, 각종 전적과 다라니, 충전용으로 넣은 백지 묶음 등이 있다. 조선 후기 불상의 복장에서 종종 발견되는 복식이나 직물류는 수습되지 않았다. 전적류 중 중요한 것은 1569년 전라도 나주(羅州) 복룡산(伏龍山) 동원사(同願寺)에서 간행한 『금강경』, 1613년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간행한 『수능엄경』, 1537년 전라도 금산(錦山) 신음산(神陰山) 신안사(身安寺) 간행의 『금강경오가해』, 1628년 전라도 영광(靈光) 수연사(隨緣寺) 간행의 『법화경』 등이 있다.<sup>9</sup>

인본(印本) 다라니로는 판각 연대가 없는 보협진언과 수능엄신주의 두 종류가 수습되었다. 2종의 진언은 범자로 표기되었으며, 백지에 주색으로 인정한 낱장 형태이다. 보협진언의 경우 1조의 굵은 선으로 테두리를 마련한 후 오른쪽에 이격(耳格)을 마련해 ‘宝篋真言’이라고 제목을 표시했다(그림3). 수능엄신주는 이격을 마련하지 않고 1조의 굵은 실선으로 테두리를 마련한 단변광곽(單邊匡廓)의 형태이다. 진언이 시작되는 우측과 끝나는 좌측에 각각 ‘首楞嚴神呪’라고 한문으로 적고, 주는 범자로 표기했다(그림4). 이 같은 진언의 간략화는 17세기 이후 복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보여 준다.

9 복장 전적에 관해서는 김태형, 앞의 글(2024), 246~24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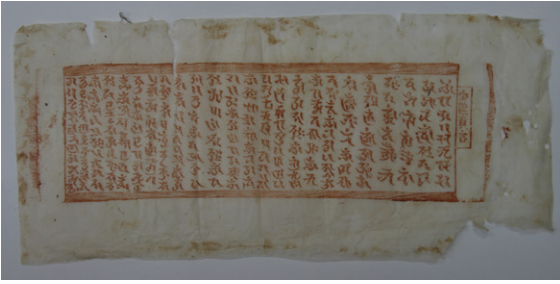


그림3-보협진언,  
조선 1646년 인경,  
사진은 이선용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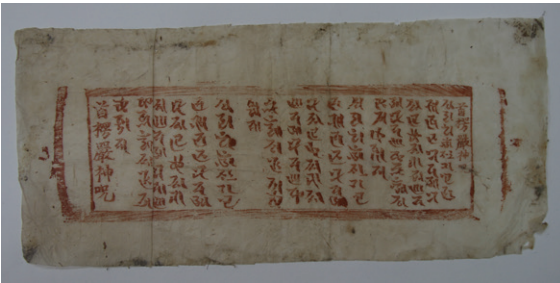


그림4-수능엄신주,  
조선 1646년 인경,  
사진은 이선용 제공

### III. 용천사판『조상경』을 통해 본 주요 복장 물목

현전하는 문헌 기록과 유물을 종합해 볼 때, 복장을 불상 내부에 안립하여 불상을 예배 대상으로 탈바꿈하는 의례와 이를 위한 의궤(儀軌)는 이미 고려 중기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현전하지는 않지만 고려시대의 조상 의례는 조선시대에 성문화된 『조상경』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유존하는 『조상경』 중 최고본인 용천사판은 크게 「대장일람경 조상품 14칙(大藏一覽經造像品十四則)」과 「제불보살복장단의식(諸佛菩薩腹藏壇儀式)」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sup>10</sup> 의례의 절차, 물목의 제작법 및 안립법 등의 내용은 ‘제불보살

10 전자는 조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하며, 후자는 조상 의식의 절차와 의미, 그리고 의식에 필요한 물목에 관해 서술한다. 용천사판 『조상경』에 대해서는 전효진, 「16세기 후반 龍泉寺本『造像經』의 성립과 의의」,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전효진, 「조선시대 조

복장단의식'에 수록된 '소입제색(所入諸色)', '복장입물초록(腹藏入物抄錄)', '통내장차제(筒內藏次第)'의 세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 부분의 내용에 비추어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후령통과 복장 다라니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후령통(喉鈴筒)과 팔엽개(八葉蓋)

조사 당시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후령통은 황초폭자로 먼저 싼 후 서로 겹쳐 접은 2매의 보협진언으로 포장되어 있었다(그림5, 그림6). 황초폭자는 후령통을 감싼 현재 상태에서 측정했을 경우 길이 30cm 정도에 달하는 크기이다. 이 황초폭자는 황색의 방형 명주로 추정되며, 가장자리는 접어서 연분홍색의 실로 홈질해 마감했다. 황초폭자로 포장한 후령통의 윗부분은 먼저 붉은색 형겅을 감고, 그 위를 끈 실로 단단히 묶어 봉인했다. 붉은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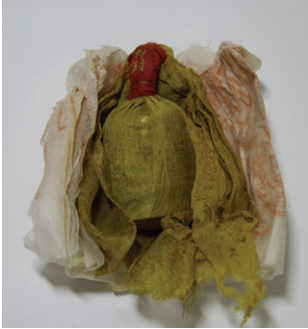


그림5-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후령통, 사진은 이선용 제공



그림6-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후령통(보협진언 분리 후 모습), 사진은 이선용 제공

상의문의 찬술과 간행: 『조상경』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17(2020), 301~331쪽 참조.

- 11 이 글에서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에 탑재된 고양 원각사 소장 용천사판 『조상경』을 참조했다.



그림7-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후령통 봉서 세부, 사진은 이선용  
제공

겉 위에 ‘討封’이라고 금니로 썼다(그림7). 이는 ‘封’ 내지 ‘謹封’이라고 기록한 한지를 이용해 봉인한 대부분의 조선 후기 황초폭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용천사판『조상경』「제불보살복장단의식」‘소입제색’의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sup>12</sup>

지금까지 조사된 17세기 이후 불상의 후령통은 재료와 형태, 형식에서 정형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후령통 역시 뚜껑에 대롱 모양의 후혈(喉穴)을 갖춘 원통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황초폭자에 감싸인 모습을 통해서도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후령통이 후혈이 있는 뚜껑과 원통형 몸체로 구성된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후령통은 1466년의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후령통에서 확인되듯이 조선 전기부터 등장했으며,<sup>13</sup> 17세기 이

12 龍泉寺板『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所入諸色, “實齒眞言及諸梵書 願文 筒外入底以黃綃幅子 稱臣封裹”. 인용문 중 ‘實齒’는 ‘보협’의 오기이며, 용천사판『조상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13 이현석(경암),「조선 초기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조상 복장 후령통 연구」,『미술사학연구』



그림8-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후령통 바닥면, 사진은 이선용 제공

후인 조선 후기에는 정형(定形)으로서 확립되었다.<sup>14</sup>

이처럼 후혈이 달린 ‘통’ 형태는 합(盒) 모양인 고려시대 팔엽통(八葉筒)과는 대비되는 조선 후기 후령통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 점은 후령통을 일컬어 ‘팔엽통’, ‘통’, ‘은합통(銀合筒)’, ‘후령팔엽통(喉鈴八葉筒)’이라 지칭한 용천사판『조상경』의 내용에 비춰볼 때 흥미롭다. 이 같은 혼용은 용천사판『조상경』을 찬술할 당시 시기적으로 상이한 복수의 전승을 함께 수록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sup>15</sup> 용천사판은 물론 능가사판, 화장사판, 김룡사판『조상경』에서도 복장 용기의 명칭으로 ‘통’과 ‘합’이 병용되고 있으며, 유점사판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명칭이 ‘통’으로 통일된다.<sup>16</sup> 이는 실제 의례의 영역에서 합에서 통으로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고, 이 같은 변화가 19세기 초에 간행된 유점사

316(2022), 19~28쪽.

14 이선용, 『『造像經』과 17世紀 腹藏의 影響 關係 考察-修德寺 大雄殿 奉安 1639年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腹藏을 中心으로』, 『문화사학』 57(2022), 105~106쪽.

15 이현석(경암), 앞의 글(2022), 12~13쪽.

16 후령통 형태와 명칭의 변화에 관해서는 이선용, 『佛腹藏物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61(2009), 80~82쪽 참조.

판에 이르러서야 『조상경』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후령통의 저면 아래에는 특이하게 볼록한 원반형의 금속체가 놓여 있다(그림8). 후령통을 해체·조사하기 전에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팔엽개(八葉蓋)일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팔엽’을 상징하는 팔엽개는 조선 후기에 후령통 내부에 안립하는 물목으로서 확립되었다. 복장 용기의 형태가 팔엽통에서 후령통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물목으로 생각된다. 팔엽개는 통상 금속으로 만들어지며, 후령통 내부에 중방을 상징하는 원경(圓鏡)과 오보병(五寶瓶)을 차례대로 안립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안립되었다.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후령통은 해체·조사되지 않았기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후령통 내에 오보병의 안립을 마친 후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구조가 특수해서 후령통 바깥쪽에 팔엽개를 안립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팔엽개의 경우는 아니지만 후령통 내부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오보병을 『조상경』의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안립한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sup>17</sup>

## 2. 다라니(陀羅尼)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에는 동일한 주인(朱印) 다라니가 황초 폭자에 쓴 후령통의 포장, 복장공의 충전, 불상 내벽의 마감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어 주목된다. 이 중 다라니를 이용한 후령통의 포장과 복장공의 충전은 『조상경』의 규정에 밀접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고려시대 복장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천사관 『조상경』에서는 ‘소입제색’, ‘복장입물초록’, ‘통내장차제’ 부분

---

17 이선웅, 「韓國佛教腹藏의 構成과 特性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147~148쪽.

에서 안립 물목으로서 다라니에 관해 설한다.<sup>18</sup> ‘소입제색’에서는 “흰 비단(白綱)에 금니로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을 쓴 것 약간, 생지(生紙)에 여러 범자를 쓴 것으로 복장공을 가득 채울 만큼 넣어 봉하라”라고 설하며, 이와 별도로 후령통의 바깥 저면에 보협진언과 여러 범자를 쓴 것, 원문(願文)을 넣고 황초폭자로 싼 후에 봉서하라고 지시한다.<sup>19</sup> ‘복장입물초록’에서는 안립할 물목에 대해 설하면서 “범자로 된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은 희고 부드러운 실로 짠 얇은 비단(熟白綱)을 이용해 금자로 쓰거나 인쇄해도 된다”라고 하여, ‘소입제색’의 내용보다는 훨씬 간략하다.<sup>20</sup> ‘통내장차제’에서는 생지에 범자로 쓴 보협진언 약간과 낱장으로 인쇄한 전신사리보협진언 약간을 복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넣으라고 지시하고, 보협진언과 원문은 은통 바깥의 바닥에 두고 황초폭자로 싼 후 봉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소입제색’의 내용과 유사하다.<sup>21</sup> 한편, 용천사관 『조상경』 본문 내에는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이 실려 있지 않아서, 실제 의례에서는 별도의 진언집을 활용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천사관 『조상경』의 지침과는 달리 광주 원각사 불상의 복장에는 〈조상발원문〉과 보협진언이 황초폭자 바깥에 별개로 안립되어 있었는데, 이 점은 17세기의 다른 복장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반면 안립된 물목 사이에 인

18 『조상경』에는 복장 내에 안립해야 할 물목으로서 다라니 외에, 의례 도중에 염송해야 할 다라니에 대한 규정도 실려 있어서 구분이 필요하다.

19 龍泉寺板『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所入諸色,“白絹金書一切如來全身舍利寶齒眞言若干 生紙諸書梵書若干 佛腹滿盛爲限閉以 … 寶齒眞言及諸梵書 願文 筒外入底以黃絹幅子 稱臣封裹”.

20 龍泉寺板『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腹藏人物抄錄,“又梵書一切如來全身舍利寶齒眞言用熟白絹金書或印出亦得”.

21 龍泉寺板『造像經』,「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筒內藏次第,“佛腹盛滿爲限 以生紙梵書寶齒眞言若干 每幅印出梵書全身舍利寶齒眞言若干數 又寶齒眞言 願文 銀筒外底黃絹幅子 稱臣封裹 條具諸物置於机上 以不動尊眞言加持一百八遍然後 入佛腹內盛滿閉之”.



쇄본 범자 보협진언과 수능엄신주를 넣어 복장공 내부를 가득 채운 것은 용천사판『조상경』‘통내장차제’의 규정에 일치한다. 복장공의 충전을 위해 다라니를 사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유점사판『조상경』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 『황초폭자내안립차제(黃綃幅子內安立次第)』에서 불복에 안립한 후령통이 기울거나, 눕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후령통의 위아래와 좌우에 진언과 범서를 가득 채우라고 지시한다.<sup>22</sup>

현존하는 복장을 살펴보면, 인쇄본 진언·다라니를 후령통의 포장과 불복의 충전을 위해 이중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확인되긴 하지만 그 유례가 많지는 않다.<sup>23</sup> 반면, 17세기 전반에는 이러한 다라니의 이중적 활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용천사판『조상경』의 성립과 유통이 실제 의례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된다.<sup>24</sup>

반면에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에서 볼 수 있듯이 불상 내벽을 진언이나 다라니 인쇄본으로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천사판은 물론 여타의 『조상경』판본에서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그림9). 그러나 그 실례는 고려시대부터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예컨대, 1346년의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의 내벽에는 제작 당시에 인출(印出)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본(印本) 팔엽삼십칠존만다라(八葉三十七尊曼荼羅)가 부착되어 있다(그림10).<sup>25</sup> 이 도

22 楡岾寺板『造像經』, 『諸佛菩薩腹藏壇儀式』條 黃綃幅子內安立次第, “既加持已 關伽供養後 入於佛腹中 正當臍輪而 正立 以眞言梵書 充滿上下左右 使無欹斜偃仰之境 初入藏之時 徐徐當察南北面背也”(밑줄은 필자). 이 글에서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 탑재된 대성사 소장본을 참조했다.

23 고려 후기에 조성된 통영 안정사 금동여래좌상의 복장에서는 황초폭자를 생략한 대신에 인쇄본 다라니를 사용해 팔엽통을 포장했다. 정은우·신은제, 『고려의 성물, 불복장』(서울: 경인문화사, 2017), 259~260쪽.

24 이선용, 앞의 글(2022), 109~110쪽.

25 정은우,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과 복장유물의 내력과 특징」, 『미술사연구』 29(2015), 8쪽(圖12).



그림9-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내부 모습, 사진은 송광사성보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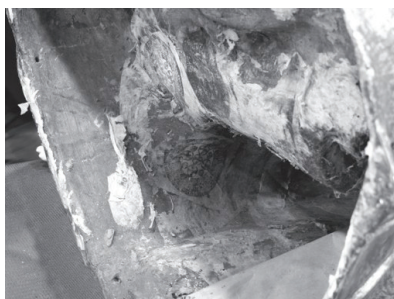


그림10-장곡사 약사여래좌상 내부 모습, 사진은 정은우(2015)에서 전제

상은 중앙에 금강계 성신회의 삼십칠존을 종자(種子)로 표시한 만다라와 팔엽(八葉)을 배치하고 그 둘레에 보협인다라니와 여러 진언을 배치해 구성한 것이다.<sup>26</sup> 고려시대 불상 복장은 조사된 사례가 많지 않고, 조사된 이후에도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곡사 불상 외에도 내벽을 다라니와 다라니만다라로 마감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17세기의 불상 중에는 이처럼 복장공 내벽을 진언·다라니로 마감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 1612년 태전(太顓)과 그 유파가 조성한 해남 대흥사 대웅전 목조약사여래좌상(그림11), 1643년 인균(印均)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그림12), 1650년에 응매(應梅) 등이 조각한 김제 금산사(현재 군산 동국사 봉안) 목조석가여래좌상이 있다(그림13).<sup>27</sup> 이상의 사례들은 복장공 내벽에 다라니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이 불상

26 손희진, 「고려시대 불복장 팔엽삼십칠존만다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98~110쪽; Seunghye Lee, “Text, Materiality, and Enshrinement Practices: Visual Culture of a Buddhist *Dhāraṇī* in Late Medieval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7, No. 2(2022), pp. 150~159.

27 조선 후기 불상 복장에 관한 논저에서도 복장공 내벽의 마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례의 정보와 사진을 제공해 준 송은석 교수에게 지면



그림11-해남 대흥사 대웅전 목조약사여래좌상 내부 모습, 사진은 송은석 제공



그림12-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내부 모습, 사진은 송은석 제공



그림13-군산 동국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내부 모습, 사진은 송은석 제공

을 제작한 조각승이나 유파와 관계없이 17세기 중엽 호남 지역에서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다라니 사용의 연원은 보협진언의 소의경전인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一切如來心祕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하 『보협인다라니경』)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전은 8세기 전반 불공금강(不空金剛)이 남아시아에서 장래해 당나라(唐, 618~907)의 수도 장안에서 한역했다. 이 경전은 보협인다라니 안에 모든 여래의 삼신(三身)이 들어 있으며, 그 안에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여래의 전신사리(全身舍利)가 있다고 설한다.<sup>28</sup>

을 빌려 감사드린다.

28 『一切如來心祕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T1022A, 19: 711b27~b29.

이는 곧 보협인다라니가 석가모니여래의 유허를 화장한 후 수습한 쉼신사리(碎身舍利)를 대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역사적인 부처인 석가모니여래뿐만 아니라 모든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일체여래의 전신사리를 봉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설한다는 점에서 신사리보다 강력한 법사리(法舍利)의 위력을 강조한다. 또한, 『보협인다라니경』에서는 그 다라니를 불형상(佛形像)이나 불탑 안에 봉안하면 이들은 곧 칠보(七寶)로 만들어진 것과 같으며,<sup>29</sup> 시방 모든 여래가 그 탑과 상이 안치된 곳을 따라다니며 가지하고 호념(護念)할 것이라고 설한다.<sup>30</sup> ‘불형상’ 및 ‘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7세기 후반에서 8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한역된 후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법사리로서 활용된 여래의 다라니가 수록된 소의경전에는 보이지 않는 구절로서 매우 중요하다.<sup>31</sup>

중국 오월(吳越, 907~978)의 마지막 군주였던 전홍숙(錢弘俶, 재위 947~978)은 세 차례에 걸쳐 『보협인다라니경』을 조판·인쇄했고, 그 경권을 금속제의 소탑 혹은 항주의 뇌봉탑(雷峰塔) 안에 안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중 955년에 조성된 동제 소탑과 956년에 관각된 『보협인다라니경』은 고려에도 전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sup>32</sup> 전홍숙의 불사는 8세기에 초역된 『보협인다라니경』이 10세기 이후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불상 내부에 보협인다라니를 법사리로서 안치하는 신앙행위는 고려와 밀접히 교류했던 11세기 거란(契丹, 907~1125)의 불교문화에서 확인되기에 주목된다. 중국 내몽고 파림우기 석가불사리탑(釋迦佛舍利塔, 1047~1049년 건립) 천궁(天宮)의 상륜당 5실에서 발견된 소탑 탑신 안에

29 『一切如來心祕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T1022A, 19: 711a23~b26.

30 『一切如來心祕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T1022A, 19: 711a6.

31 Seunghye Lee, “What Was in the ‘Precious Casket Seal’: Material Culture of the *Karaṇḍamudrā Dhāraṇī* throughout Medieval Maritime Asia,” *Religions*, Vol. 12, No. 1(2021), p. 13의 논의 참조.

32 이승혜, 「高麗의 吳越板『寶篋印經』수용과 의미」, 『불교학연구』 43(2015), 31~61쪽 참조.

는 목판인쇄본 『불형상중안치법사리기(佛形像中安置法舍利記)』 1권 등이 안치되어 있었다. 이 다라니 모음집에는 『보협인경』의 경문과 한문 음역 다라니가 실려 있다. 비록 소탑 내부에서 발견되긴 했으나 본문과 제목을 통해 ‘불형상’ 안에 법언(法言)을 안치하면 수승한 공덕을 얻게 된다는 『보협인다라니경』의 가르침에 의거해 편찬된 다라니 모음집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sup>33</sup>

『보협인다라니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고려와 조선시대 복장에서 다수 발견되는 보협인다라니의 실물은 다른 불교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선례와 마찬가지로 상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상을 보호해 주는 법사리로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협인다라니경』에는 단순히 보협인다라니를 상 안에 봉안하라고 설할 뿐이지,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내벽에 다라니를 부착한 것은 경전의 가르침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실제 조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고려 불교계의 역동성이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봐야 할 것이다.

#### IV. <조상발원문>에 나타난 17세기 호남의 재건 불사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물목 중 사료로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은 단연 <조상발원문>이다(그림14). 발견 당시 발원문은 겉면에 ‘造像’이라 묵서된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그림14-1). 발원문의 내용은 아

33 이승혜, 「10~11세기 中國과 韓國의 佛塔 내 봉안 『寶篋印經』 재고」, 『이화사학연구』 62(2021), 26~30쪽.

래와 같다.

造像義願文<sup>34</sup>

時維順治三年歲次丙戌甲午朔壬戌日<sup>35</sup>

新造像靈山教主釋迦牟尼佛一座畢功安于

瑞石山證覺庵

南無圓滿徧知覺三千大千世界中微

種心所求所願無不成就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王妃殿下壽齊年	施主秩	緣化秩
主上殿下壽萬歲	吳應生兩主	證明性悟 <sup>36</sup>
世子殿下壽千秋	金彥福兩主	持殿戒倫
大德秩	玉堅靈駕	供養主戒文
國一都大禪師覺性 <sup>37</sup>	梅月兩主	供養主仅云 小者
首坐熙彦 <sup>38</sup>	朴鳳伊兩主	畫貲秩 勝瑞
大禪師太能 <sup>39</sup>	奎男兩主	海深 戒立

34 이 글에서는 2024년 8월 11일 고경스님이 조사, 석문, 주석한 〈조상발원문〉에 기초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논지의 필요에 따라 주석을 가감했다. 자료를 제공해 준 송광사성보박물관에 감사드린다.

35 ‘順治三年歲次丙戌甲午朔壬戌日’은 1646년 5월 17일에 해당한다.

36 성오는 각성의 제자이며, 법호는 晦跡이다. 1636년에 간행한 中觀海眼의 「湖南道求禮縣智異山大華嚴寺事蹟」에 화엄사 산중대덕으로 나타나며, 「華嚴寺碧巖大師碑陰記」에 기록되었다.

37 각성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살펴보겠다.

38 법호는 孤閑으로 부휴선수의 제자이며, 벽암각성의 사제이다.

39 逍遙太能은 淸虛休靜(1520~1604)의 전법제자로 1624년의 남한산성의 수축에 참여하고, 지리산의 신흥사와 연곡사를 증건한 대선사이다. 지리산권 여러 사찰의 증건과 불상 조성에서 증명법사로 두루 활약했다.



大禪師太湖 <sup>40</sup>	崔召史兩主	覺俊
大禪師惠寶	金都致兩主	別坐曇日 性觀
大禪師性鑑 <sup>41</sup>	林福伊兩主	化土曇花
大禪師性現	李者斤金兩主	性衍
宗匠尙遠	李順福兩主	隱聰
宗匠守楚 <sup>42</sup>	沉明錫兩主	信覺
宗匠一玄	裴山虎兩主	信悟
宗匠正玄 <sup>43</sup>	命介兩主	熙旭
宗匠印旭 <sup>44</sup>	靈玉比丘	太田
宗匠正玄	鳳梅單身	覺海
大德隱牛	金喜萬單身	竺岑
大德性圭	金進吉兩主	禪正
老德一行	權三環兩主	性宗
老德祖能	金好同兩主	天鑑
老德海益	宋厚瓊兩主	敬倫
叔瓊	金壽益兩主	釋敏
智全	裴鉄鋒單身	靈冊
戒軒	姜應福兩主	暎敏

40 태호의 법호는 浩然이며, 청허휴정의 제자인 靜觀一禪(1533~1608)의 제자이다.

41 성감은 「화엄사벽암대사비음기」에 기록된 각성의 제자이다.

42 수초의 법호는 翠微이며 송광사 승려이다. 각성의 제자로, 1636년의 완주 「송광사개창비음기」와 「화엄사벽암대사비음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43 정현은 고흥 능가사를 재건한 碧川正玄(1603~1675)이다.

44 각성의 사법제자인 蓮華印旭이다. 연옥은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에 화엄사 산중대덕으로 기록되어 있다.

真 <sup>45</sup>	金聖梅兩主	海淳
廣海 <sup>46</sup>	鄭戒還兩主	戒宗
挺特 <sup>47</sup>		妙仁
智明 <sup>48</sup>		駛冶
智卬 <sup>49</sup>		駛訥
持寺靈悟		克均
三綱雪牛		靈現
唐僧觀坐		尙湖
		戒獐

〈조상발원문〉은 서두의 불상 조성 목적 부분을 제외하면 3단으로 구성된다. 내용상으로 불상 조성 관련 사항, 회향문과 축원문, 대덕질(大德秩)과 소임자, 시주질(施主秩), 연화질(緣化秩), 화원질(畫員秩), 소임자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은 1646년(順治 3) 5월 새롭게 조성해 서석산(瑞石山) 증각암(證覺庵)에 봉안한 영산교주 석가모니불 1좌에 해당한다. 서석산은 무등산의 옛 이름이며, 불상의 봉안처인 증각암은 현재 폐사가 되어 터만 남아 있다.<sup>50</sup> 증각암은 1530년에 간행된 관

45 懶庵眞一은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에 화엄사 산중대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636년의 완주 「송광사개창비음기」와 「벽암대사비음기」에도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46 태능의 제자로 법호는 雙運이다.

47 각성의 제자인 孤雲挺特이다.

48 智明은 「호남도구례현지리산대화엄사사적」에 화엄사 산중대덕으로 기록되어 있다. 1636년의 완주 「송광사개창비음기」와 「벽암대사비음기」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있다.

49 水月智嚴은 태능의 제자이다.

50 현재 위치는 광주광역시 운림동 산 132-2번지에 해당한다. 2011년 불교문화재연구원이 시행한 사지 조사에서 종선문, 어골문, 수파문 와편 등이 수습되어, 통일신라시대부터 이 터에 사찰이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편), 『韓國의 寺址 下』 (대전: 문화재청,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4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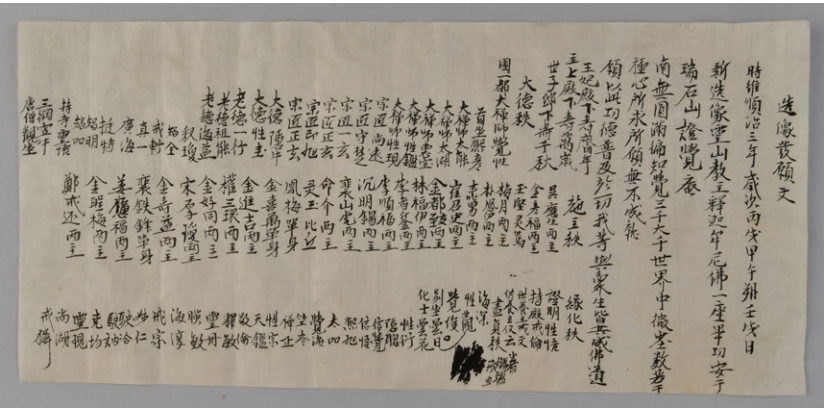


그림14-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조상발원문〉, 조선 1646년, 백지묵서, 44.5×20.7cm, 광주 원각사, 사진은 송광사성보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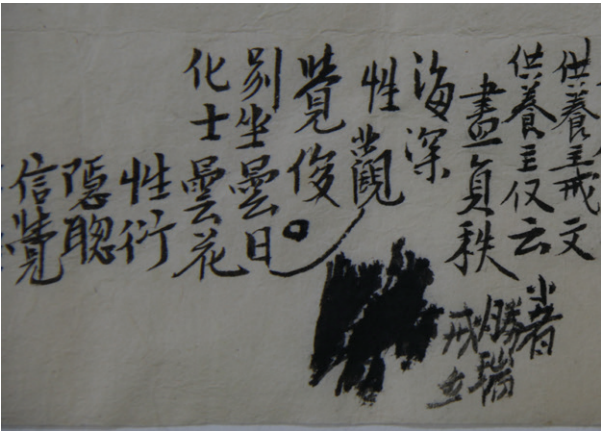


그림14-1-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조상발원문〉 봉투, 조선 1646년, 백지묵서, 5.8×14cm, 광주 원각사, 사진은 송광사성보박물관 제공

그림14-2-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조상발원문〉 화원질 세부, 사진은 이선용 제공

찬 전국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 사세가 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51</sup>

증각암의 존재가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조선 중기인 16세기의 일이다. 증각암에 대한 가장 이른 언급은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문집 『고봉집(高峯集)』에 실린 시 「증각사에 이르러 새벽에 일어나서 박화숙의 시에 차운하다[到證覺寺曉起 用朴和叔韻]」이다.<sup>52</sup> 이 외에도 1574년 여름에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이 무등산을 유람하고 남긴 『유서석록(遊瑞石錄)』에도 증각사에 들렀다는 언급이 있다. 비록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16세기 후반에는 암자가 아닌 사찰의 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1646년의 <조상발원문>에는 증각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은 후에 사세가 축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53</sup> <조상발원문>에는 협시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불사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로 보아, 목조여래좌상은 임진왜란 후 17세기의 궁핍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당시의 불교도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신앙의 중심인 대웅전의 본존불로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회향문의 좌측은 상하 3단으로 나누어 각각 삼전축원문과 대덕질, 시주질, 연화질을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기록했다. 대덕질에는 ‘국일도대선사각

51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650여 개소의 사찰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 전라도 사찰은 280개소에 달한다. 이 책에 수록된 사찰은 16세기 전반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각 군현의 대표 사찰로 볼 수 있다. 손성필, 「16세기 전반 불교계의 실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7(2016), 149쪽.

52 奇大升, 『高峯集』, 「到證覺寺曉起 用朴和叔韻」.

53 18세기에 찬술된 『輿地圖書』와 『梵宇攷』에는 무등산에 증각암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18세기에는 암자로서 명맥을 이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799년에 찬술된 『光州牧誌』 寺刹조와 1899년의 『光州邑誌』에는 무등산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18세기 후반에 폐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증각사지는 이후 방치되다가 1950년대부터 1970년까지는 무속시설인 天門寺가 존재했다.

성(國一都大禪師覺性)’을 필두로 모두 29명의 승도가 열거되어 있다. 이 중 각성을 비롯한 26명이 대덕질에 해당하고, 마지막에 열거된 지사 영오, 삼강 설우, 당승 관좌는 당시 증각암에 주석했던 승려들로 생각된다. 각성은 부휴선수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활약했으며, 종전 후에는 전국 사찰의 재건 불사를 일으켰던 벽암각성을 말한다. 각성은 1624년에는 팔도도총섭(八道都總攝)으로 임명되어, 전국의 승병을 동원해 3년 만에 남한산성을 축조했다. ‘국일도대선사(國一都大禪師)’는 인조(仁祖, 재위 1623~1649)가 각성의 공을 치하하며 의발과 함께 내렸던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의 칭호를 약칭한 것이다.

대덕질에 열거된 승려들은 벽암각성과 소요태능과의 연관 관계를 기준으로 나뉘볼 수 있다.<sup>54</sup> 먼저 각성의 사제인 희언이 대덕질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고, 그의 제자인 성감, 수초, 정특, 정현, 인옥, 진일, 지명의 이름이 보인다. 뒤에 살펴볼 연화질에 증명으로 기재된 성오도 각성의 제자이다. 한편, 대덕질에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소요태능은 청허휴정의 제자이며, 네 번째로 열거된 태호는 태능과 사질(師姪) 관계이다. 태능의 제자인 지엄과 광해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각성, 태능, 태호 등은 1630년대부터 호남 지역의 여러 불사에 함께 참여했다. 1633년부터 1635년까지 지속된 송광사의 『대방광불화엄경소주(大方廣佛華嚴經疏注)』(이하 『화엄경소』)의 판각 불사,<sup>55</sup> 1635년 태인 용장사(龍藏寺)의 대규모 개관 불사,<sup>56</sup> 1634년 완성된 구례 화엄

54 태능은 출가 전에는 부휴선수에게 교를 배웠고, 출가 후에는 휴정에게 선을 전수받았다. 이 같은 태능의 이력이 부휴계와 서산계 승려들이 불사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송은석, 「光州 圓覺寺 木造如來坐像의 造形과 性格」,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성격과 의의 학술대회(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2025.9.25), 42쪽.

55 송광사의 『화엄경소』 판각 불사에 대해서는 뒤에 더 상세히 살펴보겠다.

56 김지완·남권희,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71(2017), 253~296쪽; 송일기, 「泰仁 龍藏寺 開板佛事 研究」, 『서지학연구』 71(2017), 85~101쪽 참조.

사 대웅전의 목조삼신불좌상 조성 불사 등이 대표적이다.<sup>57</sup> 이 점은 1646년 증각암의 불상 조성이 각성, 태능, 태호 등의 대덕들이 1630년대에 호남 지역에서 대형 불사를 함께 이끌며 형성한 관계망을 심분 활용한 결과였음을 시사한다.

대덕질 말미에 열거된 소임자는 당시 증각암에 주석하던 승려를 적은 사중질(寺中秩)로 생각할 수 있다. 지사와 삼강은 소임의 명칭인데 반해, ‘당승’은 중국 승인(僧人)이라는 출신을 일컫는 말이라서 흥미롭다. 시기적으로 볼 때 여기에 보이는 당승은 명나라(明, 1368~1644)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한인유민(遺民)일 가능성이 크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세계를 뒤흔들었던 잦은 전란과 왕조의 교체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전례 없는 대규모 이민을 촉발했다.<sup>58</sup> 전쟁 초기에 파병된 요동 지역 명군을 비롯해, 평양성 전투 이후 절강, 복건, 광둥 등지의 병사를 파병함에 따라 많은 한인이 일시에 조선에 들어온 것이다.

전쟁이 종식된 1598년 이후에도 일부 명군은 부상, 경제적 곤란, 혼인 등을 이유로 조선에 잔류했다.<sup>59</sup> 1616년(광해군 8), 누루하치(1559~1626, 재위 1626~1626)의 후금(後金) 건국은 한반도에 더 많은 명나라 유민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1622년(광해군 14) 4월 4일 자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에는 피난한 중국 사람들(唐人)이 기읍(畿邑)과 관동(關東)에 가득하니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라는 명이 보이고,<sup>60</sup> 6월 16일의 기사에는 1만여 명의 중국인 남녀가 난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내용이 있다.<sup>61</sup> 이 시기 조선에 들

57 유근자,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기「施主秩」 분석」, 『미술자료』 100(2021), 112~139쪽 참조.

58 최승현, 「한국의 명대유민 연구」, 『중국인문과학』 47(2011), 354~358쪽.

59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明軍 逃亡兵 문제에 대한 一考」, 『한국학연구』 44(2017), 454~484쪽.

60 『光海君日記』 光海君 14년(1622) 4월 4일.

61 『光海君日記』 光海君 14년(1622) 6월 16일.



어온 한인 중에는 승려도 있었다. 1605년(선조 38) 9월 9일 『선조실록(宣祖實錄)』에는 예빈시(禮賓寺)에서 중국 승려[唐僧] 1명이 조선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올리자 선조가 그의 출신과 내조 원인을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기사가 보인다.<sup>62</sup>

1646년 증각암에 주석하고 있던 ‘당승 관좌(觀坐)’와 관련하여 각성의 주도로 1633년(崇禎 6, 인조 11) 8월부터 1635년(崇禎 8, 인조 13) 5월에 걸쳐 송광사에서 벌어진 『화엄경소』의 판각 불사를 주목해야 한다.<sup>63</sup> 귀진사본(歸眞寺本)을 모본으로 삼아 번각한 이 책은 전체 120권으로 이루어진 거질이다. 각성의 지휘로 많은 승려들과 재가 신도들이 동참하고, 여러 사찰에서 판각을 분담한 결과 불과 2년 만에 불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sup>64</sup> 『화엄경소』 권 112의 난외 아래쪽에 ‘唐僧○○比丘’의 형식으로 관좌(寬佐), 조묘(祖妙), 조도(祖道), 사훈(師訓), 성덕(成德), 유준(惟俊), 홍명(洪明), 신호(信湖), 관혜(寬惠), 조덕(祖德), 관수(寬守), 성원(性元), 조옹(祖雍), 관보(寬保) 14명의 법명이 열거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sup>65</sup> 증각암의 조상 불사와 송광사의 『화엄경소』 판각 불사에 각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불사에 모두 이름을 올린 관좌(觀坐/寬佐)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화엄경소』의 난외 기록에 나오는 당승들이 법명에 ‘寬’이나 ‘祖’와 같은 돌림자를 사용했다는 점은 이들이 한 문중이거나 밀접한 관련을 맺은 사이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증각암의 〈조상발원문〉이나 『화엄경소』의 시주질

62 『宣祖實錄』宣祖 38년(1605) 9월 9일.

63 당승과 송광사 『화엄경소』판각 불사에 대해 교시해 준 송광사성보박물관 김태형 학예실 장에게 지면을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64 권120 말미에 “崇禎六年癸酉仲秋日全羅 … 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이라는 간기가 있고, 권118 끝에 “崇禎八年五月日全羅 … 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76(2018), 150~151쪽.

65 오용섭, 「송광사 간행의 『대방광불화엄경소』와 판본의 계통」, 『서지학연구』 84(2020), 12쪽.

은 17세기 전반 호남 지역에 명나라 출신의 승려들이 정주하여 활동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증각암 〈조상발원문〉 대덕질의 내용은 하단에 기록된 ‘연화질’ 및 ‘화원질’과도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화질에는 증명 성오, 지전 계륜,<sup>66</sup> 공양주 계문, 공양주 근운의 5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화원질’에는 해심(海深)·각준(覺俊)·성관(性觀)의 순으로 화원 이름을 나열했다. 원문에는 해심, 성관, 각준 순으로 적혀 있으나 순서를 오기한 듯 문장 부호를 적어 바로 잡은 흔적이 있다(그림14-2). 아래쪽에 ‘소자’라 별도로 적은 다음 승서(勝瑞)와 계립(戒立) 두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화원질 다음으로 별도의 구분 없이 별좌 담일, 화사 담화가 기재되어 있고, 그 뒤로 24명의 비구의 범명이 열거되었다.<sup>67</sup> 담화 이후에 열거된 비구들을 화사로 본다면, 작은 불상 1구를 조성하는 소규모 불사에 무려 25명의 화사가 동참한 셈이 된다. 이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 증각암의 석가여래좌상 조성 불사가 비슷한 시기의 다른 불사와 연계하여 함께 거행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제2단에 기록된 시주질의 공간이 부족하여 제3단의 연화질 중 화사 담화 다음에 비구 시주자를 이어서 적었을 경우다. 이와 관련해 〈조상발원문〉 시주질에 기록된 도합 47명의 시주자 중 명확히 승려로 확인되는 이는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처럼 승려들의 시주가 거의 확인되지

---

66 계륜은 각성이 주도한 1654년의 고창 문수사 대웅전 삼세여래좌상의 불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그의 이름은 석가여래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중 대덕질에 열두 번째로 기록되었다. 고창 문수사 석가여래좌상의 조성발원문은 문명대, 「무염과 불상의 계보와 고창 문수사 무염과 불상(삼세불·지장시왕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54(2020), 273~274쪽 참조.

67 화주는 募緣을 통해 불사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僧匠을 선정·초빙하는 일도 맡았다. 17세기 불사에서 화주의 소임에 대해서는 이강근, 「華嚴寺 佛殿의 再建과 莊嚴에 관한 研究」, 『불교미술』 14(1997), 77~151쪽.

않는 것은 이 시기의 불상 조성 발원문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점에서 화사 담화 이후에 기재된 비구들의 불사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해석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화원질에 기록된 승려들은 17세기 중엽에 각성이 이끄는 불사에서 불상의 제작을 담당한 무염과 조각승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무염파는 1620년대 후반 혹은 1630년대 초반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165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라도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활약했던 조각승의 무리를 일컫는다.<sup>68</sup> 이들은 17세기 전반에는 무염, 17세기 중후반에는 해심을 중심으로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에서 거행된 여러 불사를 주관했다. 증각암 불상의 〈조상발원문〉 중 화원질에 수조각승으로 기록된 해심(海深)은 무염파의 조각승인 해심(海心)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sup>69</sup> 해심(海心)은 1630년대부터 무염의 문하에서 조각을 배운 승려 장인으로 추정된다. 그는 1640년대 후반에 이르면 수조각승으로서 독자적인 유파를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0</sup>

무염파 조각승들은 각성이 주도한 여러 불상 불사에 참여한 바 있다.<sup>71</sup> 그 중 현재 해남 도장사(道場寺)에 봉안된 1648년 5월 조성의 목조석가여래좌상과 1654년 3월 조성의 고창 문수사(文殊寺) 대웅전 목조삼방불좌상과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불사가 주목된다.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조성발원문〉을 2년 전에 작성된 증각암 〈조상발원문〉과 비교하면 발원문의 구

---

68 무염파에 관해서는 문명대, 「무염파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신흥사 목아미타삼존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0(2003), 63~82쪽; 최선일,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66~76쪽; 송은석, 「17세기 무염파의 조상 활동」, 『역사학연구』 40(2010), 114~147쪽;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서울: 사회평론, 2012), 319~342쪽 등 참조.

69 김태형, 앞의 글(2024), 243쪽.

70 송은석, 앞의 글(2010), 114쪽.

71 유근자, 앞의 글(2021), 126~127쪽, 도10 참조.

조와 체제가 유사하고, 참여한 인물들이 다수 중복된다.<sup>72</sup> 도장사 목조석가 여래좌상 <조성발원문> 역시 불상의 조성 연대와 회향문으로 시작된다(그림 15). 그 왼쪽의 공간은 삼단으로 나누어 상단과 중단 일부에 시주질을 적고, 이어서 별도로 대덕질을 마련해 모두 19명의 범명을 기록했으며, 하단에는 산중수좌질(山中首座秩), 연화질, 화원질을 적은 후 소임자와 대공덕권화(大功德勸化) 등을 적었다. 두 발원문의 대덕질은 8명의 승려가 중복되며, 증각암 발원문 연화질에 증명으로 기록되었으나 도장사 발원문에는 대덕질에 이름을 올린 성오까지 헤아리면 9명에 달한다.

또한, 두 불사의 참여한 화원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도장사 조성발원문 화원질에는 사옹 행사(師翁 幸思)와 양사 무염(養師 無染)을 필두로 수화(首畵) 해심(海心), 성관(性寬), 승추(勝秋), 종임(宗稔), 지준(智准), 민기(敏機), 삼우(三愚), 도균(道均), 명조(明照), 경성(敬聖)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로 시자(侍子) 계립(戒立)과 영결(英桀)이 열거되어 있다. 비록 한자는 다르지만 증각암 <조상발원문>에 나오는 조각승과 시자 3인의 이름이 2년 후인 도장사 <조성발원문>에도 등장한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멀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진 불사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아 해심(海深)은 해심(海心)과, 성관(性觀)은 성관(性寬)과 같은 인물인 가능성이 높다.<sup>73</sup> 한편, 증각암 <조상발원문>의 화원질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각준은 기존에 알려진 불상 발원문에서는 조각승으로 기재된 경우가 없다. 그러나 그는 각성이 증명으로 참여하고, 해심이 수조각승으로 이끈 1654년의 고창 문수사 대웅전 석가여래좌상 발원문의 대덕질에 등장하여 주목을

72 「海南 道場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48년 5월(송은석 석문); 송은석, 앞의 책(2012), 452~453쪽.

73 김태형, 앞의 글(2024), 2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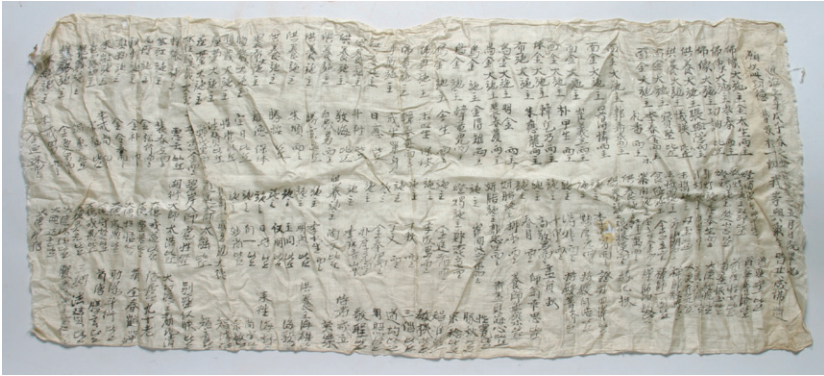


그림15-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조성발원문>, 조선 1648년, 해남 도장사, 사진은 송은석 제공

요한다.<sup>74</sup> 이 점은 각준이 증각암 불사의 총 주관자였던 각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승려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각승으로서 각준의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적인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기대된다.

무염이 수화승으로서 조각한 불상은 대전 비래사(飛來寺)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에서 볼 수 있듯 뺨, 턱, 눈두덩 등에 양감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상체에 비해 하체의 폭이 좁아서 비례가 다소 불안해 보이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그림16). 반면 해심이 수조각승으로서 조성한 1654년의 고창 문수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양 무릎 폭이 넓고 두꺼우며, 얼굴이 무염이 조각한 불상에 비해 길고 턱의 폭이 좁아지는 면모를 보여 준다(그림17). 그런데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은 하반신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아서, 1654년의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는 차이가 있다(그림1). 광주 원각사 불상에서 보이는 신체 비례는 해심이 행사와 무염의 지도로 조성한 1648년의

74 지면을 빌려 이에 대해 교시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조성발원문은 문명대, 앞의 글(2020), 273~274쪽.



그림16-無染 등,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1650년), 대전 비래사, 사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그림17-海心 등, <목조석가여래좌상>(1654년), 고창 문수사, 사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그림18-海心 등, <목조석가여래좌상>  
(1648년), 해남 도장사, 사진은 국가유  
산청 제공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림18). 이 점은 해심이 수조각승으로 독립한 초기에는 스승 무염의 작풍을 따르다가 점차 자신의 작풍을 찾아갔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은 1646년에 벽암각성과 소요태능이 중심이 되어 증각암에서 조성한 것이며, 그동안 여러 재건 불사를 통해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성사시킨 불사로서 의미가 있다. 이 점은 벽암각성이 1640년대에서 1650년대에 걸쳐 여러 번의 불사를 함께 한 무염파의 조각승들이 이 불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1648년의 도장사 석가여래삼존좌상 불사가 벽암각성이 무염파와 함께 작업한 가장 이른 사례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이 발견되면서 벽암각성과 무염파 조각승 해심의 공동 불사의 시작점 및 해심의 수좌승으로서의 독립을 그보다 이른 시기로 올려볼 수 있게 되

었다. 즉, 1646년 서석산 증각암에서는 벽암각성과 소요태능 등과 관련 있는 승려들의 주도로 중앙이나 관의 도움 없이 비교적 신분이 높지 않은 속인들이 재정적 지원으로 조상 불사가 거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상발원문〉만으로는 증각암과 불상 조성 불사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불충분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전개에서 17세기는 조선 전기와 구분되는 새로운 불상 표현 방식은 물론 정형화된 복장의 확립을 보여 주기에 중요한 시기이다.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은 17세기 전반 중건된 증각암의 중심 전각의 주존불인 석가모니여래로서 조성되었다. 1636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던 민심이 진정되어가던 이 시기에 증각암에서도 불상이 새로이 조성된 것이다. 비록 증각암은 규모가 작은 암자였지만 불상의 조성에 당대 불교계를 이끌었던 벽암각성과 소요태능의 문도들과 무염과 승장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바꿔 말하자면,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은 각성을 비롯한 당대 재건 불사의 주역들이 1620년대와 1630년대에는 수도 한양과 영호남 대찰의 대규모 중흥 불사에 집중했던 경향에서 외연을 확장하여 1640년대에는 호남의 소규모 암자의 불상 조성도 이끌었다는 점을 알려 준다.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은 풍부한 문헌 기록과 복장물을 수반한 점에서도 중요하다. 〈조상발원문〉을 통해 1646년이라는 제작 연대, 해심을 비롯한 조각승의 이름, 47명에 달하는 시주자, 증각암이라는 원래의 봉안 사찰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17세기 전반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무염파가 제작한

불상 양식의 변화상에 대한 한층 다각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만약 〈조상발원문〉에 나오는 해심(海深)이 17세기 중후반 무염파를 이끌었던 해심(海心)과 동일인이라면 불교미술사에서 그 의미가 중차대하다. 기존에 해심(海心)은 수조각승으로서 1653년에는 고창 문수사의 명부전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처음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sup>75</sup> 그러나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 조사와 추가적인 학술 연구를 통해 그가 1646년에 이미 수조각승으로서 불사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힐 수 있었다. 다만, 해심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불상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 사이에 보이는 양식적 차이, 각준이라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조각승의 정체와 그의 조각 양식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3건 126점의 복장물은 모두 불상 조성 당시 봉안된 것으로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은 17세기 이전의 복장과 비교할 때 발원문과 후령통을 중심으로 물목을 구성하고, 추가로 전적·다라니·백지 등을 납입한 단순화된 구성을 보여 준다. 이처럼 후령통을 중심으로 단순화된 복장 물목의 구성은 17세기 이래 조성된 불상의 복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점에서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은 『조상경』의 지침이 실제 복장의례와 그 결과물인 복장물의 정형화와 체계화에 미친 영향을 입증한다. 지면의 한계로 이 글에서 다루지는 못했으나 복장에서 수습된 전적들은 15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간행된 것이어서 조선 전기 불교 서지학 연구와 호남 지역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처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과 복장물은 불교사·미술사·서지학적 가치가 뛰어나며, 같은 시기에 조성된 다른 불상들과의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

75 송은석, 앞의 책(2012), 325쪽, 표 26 참조.

를 제공한다. 또한, 비교적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거찰들의 중창 불사나 불상 조성 불사에 비해 그 실상을 알기 어려웠던 소규모 암자의 재건 불사의 여러 면모를 보여 준다는 데서도 중요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조상발원문〉에 보이는 당승의 존재는 17세기 전반 호남 지역에 유입된 중국 승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에 흥미롭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光海君日記』.

『宣祖實錄』.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T1022A.

『造像經』, 1575년 담양 龍泉寺 개관.

『造像經』, 1824년 고성 楡岾寺 개관.

奇大升, 『高峯集』.

『瑞石山 證覺庵造成 木造釋迦牟尼佛 造像發願文』, 1646년 5월(고경 석문).

『仙巖寺光州布教堂大法殿上樑文』, 1940년 1월(고경 석문).

『松隱李公圭錫朴氏大德華獻誠紀念碑』, 1944년 9월(고경 석문).

『海南 道場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48년 5월(송은석 석문).

### 2. 논저

고영섭, 「벽암 각성의 생애와 사상」, 『강좌미술사』 52, 2019, 35~73쪽.

김지완·남권희,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71, 2017, 253~296쪽.

김태형, 「순천 송광사 응진당 삼존불 및 광주 원각사 극락전 목조여래좌상 복장 유물」, 『동악미술사학』 36, 2024, 237~249쪽.

남권희, 「조상경 판본의 서지적 연구」,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造像과 禮敬』, 서울: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보존회·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142~194쪽.  
문명대, 「무염파(無染派)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신흥사 목아미타삼존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0, 2003, 63~82쪽.

문명대, 「벽암 각성의 조형 활동과 불상 조성」, 『강좌미술사』 52, 2019, 15~33쪽.

문명대, 「무염파 불상의 계보와 고창 문수사 무염파 불상(삼세불·지장시왕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54, 2020, 253~274쪽.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 사찰문화재일제조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대전: 문화재청, 서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5.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 사찰문화재일제조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II·III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서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편), 『韓國의 寺址 下』, 대전: 문화재청,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 성윤길, 「光州 圓覺寺의 創建과 變遷」,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성격과 의의 학술대회(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2025.9.25), 1~32쪽.
- 손성필, 「16세기 전반 불교계의 실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7, 2016, 125~172쪽.
- 손희진, 「고려시대 불복장 팔엽삼십칠존만다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송은석, 「17세기 무염파의 조상 활동」, 『역사학연구』 40, 2010, 114~147쪽.
-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서울: 사회평론, 2012.
- 송은석, 「光州 圓覺寺 木造如來坐像의 造形과 性格」, 광주 원각사 목조여래좌상의 성격과 의의 학술대회(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2025.9.25), 37~53쪽.
- 송일기, 「泰仁 龍藏寺 開板佛事 研究」, 『서지학연구』 71, 2017, 85~101쪽.
- 유근자,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조성기「施主秩」 분석」, 『미술자료』 100, 2021, 112~139쪽.
- 오용섭, 「조선시대『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76, 2018, 135~158쪽.
- 오용섭, 「송광사 간행의『대방광불화엄경소』와 판본의 계통」, 『서지학연구』 84, 2020, 5~29쪽.
- 이강근, 「華嚴寺 佛殿의 再建과 莊嚴에 관한 研究」, 『불교미술』 14, 1997, 77~151쪽.
- 이선용, 「佛腹藏物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61, 2009, 77~104쪽.
- 이선용, 「韓國佛教腹藏의 構成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선용, 「『造像經』과 17世紀 腹藏의 影響 關係 考察: 修德寺 大雄殿 奉安 1639年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腹藏을 中心으로」, 『문화사학』 57, 2022, 93~125쪽.
- 이승혜, 「高麗의 吳越板『寶篋印經』수용과 의미」, 『불교학연구』 43, 2015, 31~61쪽.
- 이승혜, 「10~11세기 中國과 韓國의 佛塔 내 봉안『寶篋印經』재고」, 『이화사학연구』 62, 2021, 1~42쪽.
- 이현석(경암), 「조선 초기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 후령통 연구」, 『미술사학연구』 316, 2022, 5~37쪽.

전효진, 「16세기 후반 龍泉寺本 『造像經』의 성립과 의의」,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전효진, 「조선시대 조상의문의 찬술과 간행: 『조상경』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17, 2020, 301~331쪽

정은우,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과 복장유물의 내력과 특징」, 『미술사연구』 29, 2015, 7~28쪽.

정은우·신은제, 『고려의 성물, 불복장』, 서울: 경인문화사, 2017.

최선일,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최승현, 「한국의 명대유민 연구」, 『중국인문과학』 47, 2011, 354~358쪽.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明軍 逃亡兵 문제에 대한 一考」, 『한국학연구』 44, 2017, 454~484쪽.

Lee, Seunghye, “What Was in the ‘Precious Casket Seal’?: Material Culture of the *Karaṇḍamudrā Dhāraṇī* throughout Medieval Maritime Asia,” *Religions*, Vol. 12, No. 1, 2021, pp. 1~20.

Lee, Seunghye, “Text, Materiality, and Enshrinement Practices: Visual Culture of a Buddhist *Dhāraṇī* in Late Medieval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7, No. 2, 2022, pp. 137~168.

### 3. 기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 국문초록

조선 후기인 17세기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파괴된 불교 사찰이 재건됨에 따라 많은 불상이 조성되었으며, 이 불상들을 예경 대상으로 탈바꿈하는 복장(腹藏) 의례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거행되었다. 복장은 고려시대 이래 발전한 조상(造像) 의례와 그 결과 불상 안에 안치된 물목(物目)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 논문은 지난 2024년 8월 조사된 광주 원각사(圓覺寺) 목조여래좌상 주요 복장물의 검토를 통해 17세기 전반 호남 지역 재건 불사의 실상에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이 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상발원문(造像發願文)〉을 통해 1646년에 서석산 증각암(證覺庵)에서 해심(海深) 등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복장 물목의 구성과 안립 방법을 고려시대 전통과 1575년에 담양 용천사(龍泉寺)에서 간행된 『조상경(造像經)』과 상호 대조하여 검토했다. 특히 후령통의 포장, 복장공의 충전, 복장공의 내벽 마감에 사용된 인본 진언을 보협인이라니와 법사리(法舍利) 신앙의 맥락에서 분석했다. 또한, 〈조상발원문〉의 다각적인 고찰을 통해 증각암 불상 조성의 중심에 17세기 호남 지역의 재건 불사를 주도했던 각성(覺性)과 태능(太能)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조상발원문〉과 17세기 호남 지역에서 개관된 불서의 간행 기록을 대조하여 당승(唐僧)의 활동에 대해 진일보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17세기 호남 지역 불교계의 활동과 재건 불사의 한 측면을 밝혔다는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투고일 2025. 10. 6.

심사일 2025. 11. 24.

게재 확정일 2025. 12. 2.

주제어(keywords) 복장(bokjang), 『조상경』(*Sūtras on the Production of Buddhist Images*), 다라니(*dhāraṇī*), 벽암각성(Byeokam Gakseong), 당승(Chinese monks)

## Abstract

Buddhist Reconstruction Projects in Seventeenth-Century Honam Seen  
through the *Bokjang* of the Wooden Seated Buddha at Wongaksa Temple,  
Gwangju  
Lee, Seunghye

The seventeenth century witnessed the rebuilding of numerous Buddhist monasteries and temples that were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7). The reconstruction of monastic complexes led to the active production of Buddhist images and, in turn, the *bokjang* (consecration) ritual for these newly created images. The *bokjang* (lit. “abdominal cache”) refers both to the ritual intended to imbue Buddhist images with sacredness and to the deposits enshrined inside their inner recesses during that ritual. Consequently, the majority of the extant *bokjang* deposits date back to the seventeenth century,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study examines the *bokjang* deposit of the wooden seated Buddha at Wongaksa Temple in Gwangju. Found in mint condition and investigated in August 2024, the deposit new light on the reconstruction of Buddhist monasteries and the production of Buddhist images in the Honam region around the mid-seventeenth century. The dedicatory inscription reveals that the statue was produced in 1646 at the Jeunggakam Hermitage on Mt. Seoseok by monk-sculptor Haesim and others. First, this study examines a distinctive formal feature of the main consecration container, known as *buryeong tong* (lit. “throat-bell container”), which is wrapped in yellow cloth, in light of the prescriptions outlined in the Yongcheonsa edition of the *Josang gyeong* (*Sūtras on the Production of Buddhist Images*), published in 1575. It also situates various uses of *dhāraṇī* prints inside the inner recesses of the Wongaksa statue in the context of the Precious Casket Seal Dhāraṇī cult and dharma relics. Second,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dedicatory inscription, identifying the monks Gakseong and Taeneung as the key organizers of the entire proje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is inscription with the colophons of Buddhist texts published in the seventeenth-century Honam region enable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ctivities of local monks. By doing

so, it sheds new light on the presence of Han Chinese monks in the region, who most likely hailed from Ming China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or the Ming-Qing transition on the Chinese continent. Through these findings, this study elucidates the dynamic nature of Buddhist re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ritual culture of the Honam region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thereby contributing to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late Joseon Buddhist practices and regional religious history.